

# 대니엘 강, 2주 연속 '우승'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대회 4라운드 3언더파 68타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로  
리디아 고 등 따돌려 정상 올라



미국 교포 대니엘 강이 9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CC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니엘 강은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17번 홀까지 단독 선두를 지킨 리디아 고에 1타 차 극적 역전승을 거두며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공동 2위에 머물렀다. 마지막 18번홀에서 범한 더블보기가 치명적이었다. 호주교포 이민지는 13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단독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지은(28)은 6언더파 278타로 공동 20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재미교포 대니엘 강(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2주 연속 정상에 섰다. 대니엘 강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장(파 71)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3개를 쳐 3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친 대니엘 강은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조디 이워트 새도프(잉글랜드)를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LPGA 투어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대니엘 강은 2주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다.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신고했다. 25만1500달러(한화 약 3억원)의 우승 상금을 차지한 대니엘 강은 이번 시즌 삼광링크에서 1위에 올라섰다. 리디아 고는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날 1타를 잃은 부진 끝에 14언더파 270타로 아쉽게

## 도내 중·고등부 펜싱, 전국대회서 두각

은 1·동 3개 등 획득으로 성적 '우수'



도내 중·고등부 펜싱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0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남중등부 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이리복중 이무형은 은메달을, 여중등부 에페 단체 경기에서 나선 이리복중은 소중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익산 지원중은 여중등부 사브르 단체 경기에서 3위를 차지했고, 이리여고 배현실은 에

페 개인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 대회에 출전한 전북제일고와 전북체고 펜싱 선수들은 메달 상상에 실패했다. /장은성기자

## 프로축구 14일부터 관중 입장규모 30%로 확대

정부 "방역지침 준수 철저하"

정부가 11일부터 프로야구 관중 입장규모를 30%로 확대한다. 프로축구는 오는 14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프로스포츠 영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대면으로 운영하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관중들을 입장시키기 시작

했다. 전체 관중석의 10% 수준이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관중 입장을 재개하는 것을 발표한 이후 초기 일부 미흡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입장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프로야구는 11일부터, 프로축구는 14일부터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준수, 좌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육성 응원 금지 등과 같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 태권도원 전문 해설사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21일까지 태권도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태권도원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태권도원 전문 해설사'를 모집한다. 태권도원 전문 해설사는 태권도원 방문객들에게 태권도원의 시설 안내와 홍보, 체험 콘텐츠 지원 등 태권도 가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태권도원 전문 해설사 모집에는 태권도원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해설사 양성교육과 실전연습 등 사전교육을 진행 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설 시연 현장평가를 거쳐 태권도원 전문 해설사 자격을 부여한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전문 해설사들은 태권도에 대한 기본 이해와 태권도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담당하게 된다"라며 "전문 해설사를 통해 태권도원 방문객에게 더 높은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원 전문 해설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보경, '작년 K리그 MVP' 위용 되찾다

대구FC와 15라운드서 멀티골로 전북현대 2-0 승리 견인  
전북, 선두 울산과 승점 차 1로 좁혀 추격에 큰 동력 얻어



조세 모라이스 감독과 김보경(오른쪽).

프로축구 K리그(1부리그) 전북 현대의 김보경이 뒤통에 발동을 걸며 작년 최우수선수(MVP)의 위용을 되찾았다. 새 외국인선수 구스타보, 모 바로우에 김보경까지 살아나면서 전북은 선두 추격에 큰 동력을 얻었다. 김보경은 지난 8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 2020 15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전북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3연승을 달린 전북(11승2무2패 승점 35)은 수원 삼성과 0-0으로 비긴 선두 울산 현대(승점 36)와의 승점 차를 1로 좁혔다. 지난 1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14라운드에서 역전 결승골을 기록한 김보경은 2경기 연속 골과 함께 멀티골을 기록, 오랜 침묵에서 탈출했다.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몰아쳤다. 김보경은 지난해 K리그 MVP 주인공이다. 울산 유니폼을 입고 35경기에 출전해 13골 9도움으로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발동이 늦게 걸렸다. 김보경은 13라운드까지 11경기에 출전해 공격포인트를 단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막강 공격진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루트를 기대했지만 침묵은 길었다. '낙공(낙치고 공격)'을 자랑하는 전북이 앞서 골 침묵에 허덕였던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름 이적시장에서 구스타보와 모 바로우가 합류하면서 상대 수비가 분산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구스타보의 높이, 바로우의 스피드를 통한 공격 전개가 위협적인데다 여기서 파생되는 루트가 다양해 수비 입장에서 골짜롭다.

받아 시도한 원발슛이 상대 수비수 몸에 맞고 골대를 갈랐다. 풀키피 구성운(대구)이 손쓸 수 없는 왼쪽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다. 전반 43분에 추가골을 기록했다. 자신이 시도한 슈팅이 풀키피와 수비수 발에 맞고 흐른 것을 재차 원발로 때려 대구의 골망을 흔들었다. K리그 첫 4연패를 노리는 전북에 김보경의 활약은 선두 추격에 큰 힘이다. 공교롭게 지난해 소속팀이었던 울산을 추격해야 한다. 김보경은 "우리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연습 중이고 계속 승리할 것이다"고 했다. 조세 모라이스 전북 감독은 김보경에 대해 "침묵기가 길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결실로 나타났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카디프 시티(2012~2015), 위건 애슬레틱(2015)에서 뛰었던 김보경은 2016년 전북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르는데 기여했다. 또 한 번의 우승 인연을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 좋단다.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